

글로벌 언어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통번역 교육 혁신 방향 연구

장애리(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은 언어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가치사슬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형언어모델(LLM)의 등장 이후 언어서비스 산업은 번역과 통역 중심의 전통적인 서비스에서 현지화(localization), 콘텐츠 생성, 워크플로우 설계 및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 AI 기반 번역 자동화(translation automation)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언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AI 기반 인간-기계 협업(human-in-the-loop)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Angelone et al., 2024, pp. 1-6).

그러나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통번역 교육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번역 및 통역 수행 역량 중심의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AI 번역,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CAT 도구 활용 등 교육을 도입하고 있으나, 개별 기술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산업 전반의 변화와 미래 직무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언어서비스 산업과 통번역 교육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은 AI 번역기술의 발전이나 통번역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의 시장 변화와 교육 혁신을 직접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시장조사보고서와 기술평가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 변화가 통번역 교육에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의 최신 시장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통번역 교육의 요구역량으로 재구성함으로써 AI 시대 통번역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최근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의 주요 시장 트렌드는 무엇인가? 둘째, 언어서비스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요구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언어서비스 산업의 요구역량을 반영한 통번역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언어서비스 산업의 개념과 발전 과정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주요 시장조사보고서와 기술평가보고서 등 관련 최신 문헌 분석을 통해 글로벌 언어산업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달라진 요구역량을 도출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언어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출된 요구역량을 통번역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며, 제5장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기술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언어산업의 개념과 시대적 진화

언어산업은 언어를 매개로 다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여 발전하게 된 것은 통

역과 번역 등을 아우르는 언어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비즈니스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ngelone et al., 2024). 그런 의미에서 음성 전송 장비 도입을 통해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최초로 시작된 동시통역과 1954년 IBM의 러시아 텍스트 영문 번역 컴퓨터 실험에서 비롯된 최초의 기계번역 시도는 언어기술 개발의 시초이자 언어산업의 원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80년대 PC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프리랜서 번역사와 번역 에이전시들의 컴퓨터를 통한 텍스트 저장, 편집, 납품이 가능해지고, 문법 검사기 등 초보적인 언어기술의 등장과 함께 대량 번역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언어의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었다(Angelone et al., 2024). 9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PC 보급과 더불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따라 번역은 ‘현지화(localization)’로 재명명되었고 컴퓨터보조번역(computer-assisted translation, CAT)의 개발로 번역사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었다. 2000년대에는 글로벌 경제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개별적인 현지화를 넘어 전사적 차원의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글로벌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의 분산된 번역 네트워크가 아닌 대형 언어서비스제공업체(language service provider, LSP)를 중심으로 다국어, 다지역,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합 위탁하며 언어산업이 발전하였다(van der Meer, 2024). 판 데르 메르(van der Meer, 2024)에 따르면 AI 기술이 신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어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은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다. 그는 언어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번역은 더이상 독립적인 과업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로 편입 및 통합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번역보다는 기계번역 이후 인간에 의한 편집, 감수, 검토, 수정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계번역 엔진의 성능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품질 언어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통역과 번역 등 언어기술에 사용되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정보 추출과 요약, 감성분석, 음성인식, 질의응답 등 다양한 과업에 핵심적으로 활용되기에 향후 언어산업에서 TM(translation memory), 병렬 코퍼스, 도메인 데이터, 용어집 등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는 번역 자체보다 데이터의 판매와 거래, AI 학습 데이터의 개발과 훈련, 데이터 기반 다국어 운영(multilingual operations) 등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가

언어산업의 성장 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Angelone et al., 2024; van der Meer, 2024).

언어산업에 대한 정의는 2024년까지만 해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현지화(localization). 번역(translation)을 의미하는 ‘GILT’와 통역(interpretation)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어 간 변환(interlingual mediation)에 직접 관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언어산업의 범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광의의 관점에서 위에 언급한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류에 속하는 콘텐츠 제작이나, AI 및 자연어처리와 CAT 등의 기술 도구 설계 및 개발과 하류에 속하는 출판, 배포, 다국어 컨설팅, 미디어 접근성, 품질관리, 데이터 구축, 언어 교육과 학습 등 상하류 인접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언어산업을 정의하는 것이다. 언어산업 시장조사 기관인 슬레이터(Slator)는 전자를(Faes & Massey, 2024), 님지인사이드(Nimdzi Insights)¹⁾는 후자의 정의를 채택하였으나 2025년부터 슬레이터 역시 전통적인 언어 간 변환 중심의 서비스에서 다국어 콘텐츠 생성, 접근성, 언어 AI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범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롭다(Slator, 2025). 따라서 최신 언어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전통적인 ‘GILT’와 통역서비스를 넘어 AI 중심의 언어 관련 제반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언어산업과 통번역을 연계한 선행연구

기존에 언어산업과 통번역을 연계하여 꽤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박지영(2017)은 당시 컴퓨터보조번역(CAT)과 클라우드소싱 번역으로 대표되는 언어기술이 통번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 『The 2026 Nimdzi 100(2026년지100)』은 언어서비스를 번역, 현지화, 트랜스크립션, 다국어 DTP, 언어품질보증, 언어 테스트, 다국어 카피라이팅, 다국어 기술문서 작성, 언어 프로젝트 관리, 통역, 화상원격통역(VRI), 전화통역(OPI), 언어전문가 검증 및 파견, 미디어 현지화, 버전 제작, 각색, 자막, 보이스오버, 더빙, 기계번역, 기계번역 엔진 훈련, 문화 컨설팅, 데이터/AI 서비스, 생성형 AI 텍스트 생성 및 편집을 포함한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76).

2016년 기준 20대 글로벌 LS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에 기계번역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신경망 번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글로벌 LSP는 이미 인간번역이 아닌 100% 포스트에디팅 방식의 서비스를 채택하였으며, 통번역을 전후로 하는 원문 콘텐츠 작성과 번역본의 매체 탑재, 통번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글로벌 마케팅과 언어 교육 등으로 언어서비스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언어기술은 기존의 통번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특별히 번역 비용 하락보다 번역 수요 증가폭이 더 클 경우 언어서비스 시장과 고용이 증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 외 김순미 등(2019)에서는 IT 매뉴얼 영한번역에서 기계번역 후 편집(MTPE)과 인간번역의 생산성을 비교하고, 구글, 카카오, 파파고 등 범용 기계번역 엔진의 성능과 오류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통번역 관련 학계와 LSP 등 업계가 공동으로 언어산업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MTPE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남보리(2021)는 LSP 실무자로서 국내 현지화 업무 종사자, 포스트에디터 및 프로젝트 관리자 등 언어서비스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MTPE 기준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KIGO²⁾에서 제시한 MTPE 스타일 가이드를 검토하여 MTPE의 개념과 서비스 수준에 따른 수정 범위 및 오류 유형의 사례 등을 보완하여 LSP 관점에서 언어서비스 업계의 다양한 주체가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MTPE 스타일가이드를 제안하였다. 그 외 LSP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여 언어서비스 관련 직무의 변화 및 분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현주(2022)와 왕완잉과 쑤진(王传英과 孙瑾, 2026)의 연구가 있다. 우선 전현주(2022)는 AI 번역플랫폼을 기반으로 번역 관련 직군 및 직무의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이 한국의 직업사전과 직업 전망 등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 지표와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2) KIGO는 한국 IT 산업 세계화 학회(Korea IT globalization organization)의 영문 약칭으로, 국내 현지화 업계의 주요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세계화의 주축이 되는 용어 표준화뿐만 아니라 학술행사, 강연, 컨퍼런스, 분과모임, 학회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남보리, 2021).

현실을 지적하며 번역이라는 직업의 ‘장’에서의 소외 현상을 언급하였다. 또한 번역 관련 채용공고, ISO 기준 및 국내 언어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등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AI 번역플랫폼 기반 직명과 직무에 대한 정의와 기술을 시도하였다. 그 외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행연구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왕완잉과 쑨진(2026)의 연구로 이들은 언어서비스 및 글로벌 현지화 시장조사기업 님지인사이즈가 발표한 2025 글로벌 50대 LSP의 언어서비스 관련 채용공고 2505건을 수집하여 텍스트 코딩과 빈도 분석 등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AI 시대 언어서비스 인재에 대한 수요와 요구역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인재 수요는 ‘아령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재 수요가 많은 한쪽은 데이터 라벨링이나 기초 포스트 에디팅 등 저숙련 업무에 대한 AI와 인간 협업 관련이며, 다른 한쪽은 PM, 현지화, 품질 관리 등 고숙련 융합형 업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수요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인간 번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I 시대 언어서비스 분야는 AI+직업소양+통번역+전문분야 역량을 고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윤리와 책임감, 실행력 등의 기본역량과 AI 기술능력과 통번역 능력을 포괄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특화된 전문지식, 창의성, 프로젝트 관리 등 역량을 겸비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직업적 성취를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王传英과 孙瑾, 2026, pp. 67-70).

지금까지 언어산업과 통번역의 접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결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언어기술 발전에 따른 LSP의 서비스 확장, MTPE의 생산성과 실무 지침, AI 번역 플랫폼 기반 직무 분화, 글로벌 LSP 채용 수요 분석 등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기존 연구가 특정 기술(CAT, 클라우드소싱, MTPE 등)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 시장조사 업체의 보고서 혹은 채용 공고 등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된 경향을 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근에 진행된 왕완잉과 쑨진(2026)의 연구를 제외하면 최근 언어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온 변화와 영향은 연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진행된 왕완잉과 쑨진(2026)의 연구도 님지인사이즈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정한 글로벌 LSP의 채용 공고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직무의 변화를 통합적으

로 설명하고 역량 분석에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언어산업 전문 조사기관의 최신 자료를 교차 분석하고, 번역 자동화 기술기업인 인텐토(Intento)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기술, 인재 차원으로 나누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언어산업의 니즈를 인재 육성을 위한 요구역량으로 전환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3. 글로벌 언어산업 현황 분석

3.1 분석 자료와 범주

본 장에서는 글로벌 언어산업 현황 분석을 위해 자료의 전문성, 공개성, 최신성, 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를 선정하였다.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언어산업 전문 조사기관 CSA리서치(CSA Research), 님지인사이즈, 슬레이터의 최신 시장보고서 및 공개자료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위 세 개 기관은 모두 언어서비스, 현지화, 언어기술 산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기관의 조사 방법과 시장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CSA리서치는 공급자 조사에 기반해 언어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와 성장 전망을 산출하고, 님지인사이즈는 주요 공급자의 매출과 기업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규모와 기업 순위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슬레이터는 언어서비스를 언어 AI와 다국어 솔루션까지 확장하여 구매자 지출, 기술 플랫폼, 투자 및 인재 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징을 갖는다. 더불어 종합 시장조사 기관인 모르도르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 및 아이마크그룹(IMARC Group)의 언어산업 시장보고서도 분석 자료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언어산업 내부 관점의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언어산업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그 외 현재 언어산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적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번역 자동화 기술기업 인텐토의 『The state of translation automation 2025(2025년 번역 자동화 현황)』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인텐토는 기업용 기계번역 및

번역 자동화 AI 플랫폼 기업으로 매년 기계번역과 번역 자동화 기술 평가를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올해는 총 46개 상용 기계번역(MT)과 대형언어모델(LLM) 및 AI 에이전트를 11개 언어쌍에서 평가하고, 맞춤화 및 인간번역과의 비교 결과를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용 번역 자동화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고, 현재 발전을 거듭하는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한 워크플로우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번역협회(中国翻译协会)가 글로벌 언어산업 관련 주요 보고서와 시장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행한 『2026全球翻译行业发展报告(2026년 글로벌 통번역산업 발전보고서)』를 통해 최신 언어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분석 범주는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 기술, 인재 총 4개 범주로 나누어 진행한다.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는 전체 언어산업 시장 규모와 성장률 및 미래 전망과 언어서비스 산업 구조의 변화 양상 등을 포함하며,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은 진화하는 수익모델 및 언어서비스 유형의 변화와 확장을 포함한다. 기술은 MT, LLM, 멀티 에이전트 등 기술의 도입이 번역 성능 및 업무 흐름과 언어산업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포함하며, 인재는 직무 변화, 고용구조, 요구역량 등을 포함한다.

3.2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

글로벌 언어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조사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별 시장에 대한 범주와 정의, 서비스와 기술의 포함 범위, 조사 기준 연도와 산정 기준 등의 차이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자체로 현재의 언어산업 시장에서 전통적인 언어서비스와 언어기술의 경계가 재설정되고 비즈니스 범주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관별로 추산한 2025년도 시장 규모와 미래 성장 전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관별 글로벌 언어산업 시장 규모 추정치 비교³⁾

기관명	2025년도 시장 규모 (추산)	미래 전망
CSA리서치 ⁴⁾	486.7억 달러	2027년 451.3억 달러 CAGR -3.71%
넘지인사이즈	726억 달러	2030년 761억 달러 CAGR 1%미만
슬레이터	308.5억 달러	2031년 361억 달러 CAGR 2.65%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718.4억 달러	2031년 969.7억 달러 CAGR 5.12%
아이마크그룹	788억 달러	2034년 1,141억 달러, CAGR 4.20%

흥미로운 것은 언어산업에 특화된 CSA리서치, 넘지인사이즈, 슬레이터는 시장 전망에 대해 -3.71~1% 미만과 2.56%의 연평균성장률(CAGR)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종합 시장조사 기관인 모르도르인텔리전스와 아이마크그룹의 CAGR 전망은 각각 5.12%와 4.20%로 훨씬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IMARC Group, 2026; Lommel, 2025b; Mordor Intelligence, 2026; Slator, 2026). 다만 CSA리서치와 넘지인사이즈는 현실적인 전망 외에 AI 기반 서비스와 잠재 수요의 흡수 및 기업의 가치 창출과 연계된 글로벌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는 낙관적 시나리오 기반의 고성장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조사기관이 저성장과 고성장 전망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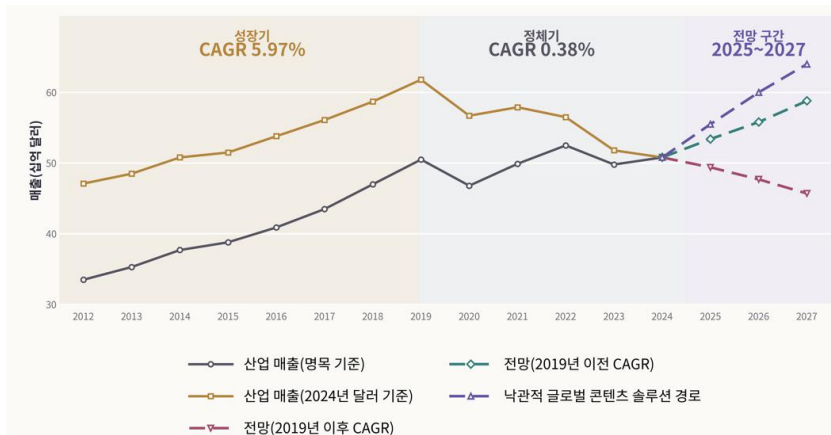
CSA리서치에 따르면 언어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9년 610.6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성장률이 하향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2023년은 전년

3) 각 기관은 언어서비스 시장의 범위, 포함 서비스, 산정 방법 및 예측 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수치의 직접 비교보다 경향성 파악에 적합하다.

4) CSA리서치의 2025년 수치는 롬멜(Lommel, 2025b)에서 제시한 명목 시장규모 추정치이며, 2027년 수치는 2019년 이후의 저성장 추세를 연장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추산하였다.

대비 -9.36%의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진행된 인간번역 중심의 시장 축소, 기계번역의 증가, 전통적인 언어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 및 언어 솔루션으로의 사업 전환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위기’로 드러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Lommel & Coleman, 2025). CSA리서치는 2023년을 ‘로컬리제이션의 정점 (peak-localization)’으로 간주하고 이후의 시장은 ‘포스트 로컬리제이션 시대 (post localization era)’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번역 중심의 로컬 리제이션 모델을 넘어 번역과 AI 및 자동화를 결합한 글로벌 콘텐츠 솔루션 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여 기존의 LSP가 GCSP(global content service provider)로 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Lommel & DePalma, 2023).

그림 1
CSA Research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 매출 추이와 전망⁵⁾



5) 롬멜(Lommel, 2025b, p. 2)의 보고서 중 Figure 4: Growth Potential Will Come from New Solu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생성함. 전망 중 ‘2019년 이전 CAGR’은 지속적인 고성장 기반의 전망(초록색)이며, ‘2019년 이후 CAGR’은 저성장 기반 전망(붉은 색)을 의미함.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슬레이터는 2025년도 시장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전통적인 언어서비스(번역/통역/현지화) 외에 다국어 콘텐츠 생성, 접근성, 더빙과 자막, 음성번역, 실시간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광의의 시장 범주를 적용하였고, 2026년도 시장보고서의 부제를 언어솔루션과 AI(language solutions & AI)로 명명하며 AI 중심으로 발전하는 시장의 지형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슬레이터(2025)의 보고서에는 ‘언어 AI(Language AI)’가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AI 번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음성과 텍스트의 변환과 생성, 언어 워크플로우의 조정과 통합(orchestrating), 언어 결과물의 목적과 요구에 따른 조정(adapting)을 수행하는 AI 기술과 응용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슬레이터(2026)는 언어산업 시장의 공급자를 기술 층위를 지원하는 언어기술 플랫폼(language technology platforms, LTP)과 기술과 인간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대규모로 관리된 언어 성과(managed language outcomes)와 복잡한 언어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언어솔루션통합사업자(language solutions integrators, LSI)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의 GILT 중심의 언어서비스사업자(LSP)가 공급의 주체였던 산업 구조에 AI 기반 기술업체를 또 다른 공급의 축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언어기술과 서비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 구조 측면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시장의 분절화와 양극화이다. 『The 2026 Nimdzi 100(2026년지100)』에 따르면 언어산업 글로벌 100대 기업의 2025년 매출 총액은 약 143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9.8%에 불과하고, 상위 10개사 매출 비중이 9.9%로 여전히 분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AI가 시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술투자와 M&A가 가능하고 독자적인 언어 AI 생태계 구축 및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대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반면, 소규모업체는 기술투자 한계, 데이터 부족 등 자본과 기술의 제약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중국번역협회(2026)는 산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언어서비스 외에 기술 플랫폼을 포함하는 주요 상위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재편 속에서 중소형 업체의 경우 수직 분야에 대한 독보적 전문성 확보와 특정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과 병행 발전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언어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와 전망 및 산업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기관별 시장 규모의 편차는 조사기관별 시장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의 차이 등 조사 방법론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현재 언어산업 시장 경계의 재설정과 산업 구조의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산업에 특화된 조사기관일수록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으며,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AI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존의 LSP 외에 AI, 콘텐츠, 데이터 관련 기술 플랫폼을 새로운 시장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업체 랭킹과 시장 분석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언어산업의 범주에서 향후 언어 서비스와 언어기술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AI가 언어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되면서 기술과 데이터 및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기업과 소규모업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체의 경우 도메인 전문성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대형업체와 공존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CSA리서치는 향후 언어산업에서 범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LSP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전문성 확보는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강조하였다 (Lommel, 202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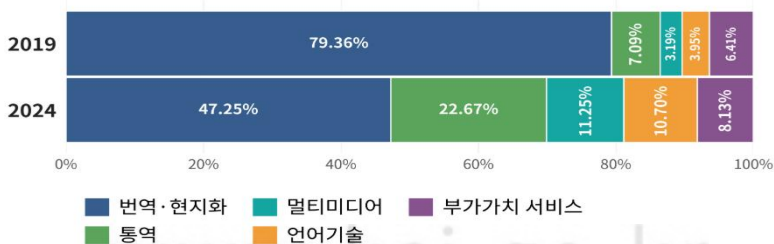
3.3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

AI가 촉발한 언어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언어산업 기업의 정체성과 수익 구조 및 서비스 제공 방식과 유형 등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시장의 주체인 관련 기업들의 정체성이 기존의 언어서비스제공업체(LSP)에서 언어솔루션통합사업자(LSI) 혹은 글로벌콘텐츠서비스사업자(GCSP)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방식 역시 기존의 단어와 페이지 혹은 시간당 과금 기준으로 개별 번역과 통역 산출물을 제공하던 형태에서 고객의 사업 성과를 목표로 기술, 데이터, 인간의 전문성, 품질 및 위험 관리 등을 결합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을 위한 언어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텍스트 중심의 번역과 현지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고객의 웹사이트, 앱, 고객지원, 제품정보 등 옴니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멀티모달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현지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사적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다언어 콘텐츠 생성, 접근성, 데이터 서비스, 품질과 위험 관리, 규제 대응, 워크플로우 설계, AI 개발 등의 언어와 기술이 통합된 솔루션 제공으로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언어산업의 가치 창출 단위가 개별 언어 산출물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적 설계와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도 기존의 건별 발주 및 납품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14; IMARC Group, 2026; Lommel & Coleman, 2025, pp. 3-7; Slator, 2026).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범주의 변화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언어산업 시장 지형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이마크그룹(2026)과 모르도르인텔리전스(2026)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서비스 유형 중 번역의 비중이 각각 70.7%와 42.5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장 보고서가 AI로 인한 번역 단가 하락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CSA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언어서비스 시장에서의 번역 매출이 2019년의 79.36%에서 2024년 47.25%로 감소하는 등 번역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Lommel, 2025b).

그림 2
2019~2024년 언어서비스 매출 구성 변화⁶⁾



그렇다면 향후 언어산업의 성장 동인으로 부상할 서비스 유형과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AI 도입으로 인한 번역 자동화 및 Open AI, Google 등 범용 기술 플랫폼의 번역 기능 내재화(Translation as a Feature, TaaF)로 인해 번역 단가와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번역 품질 리스크의 증가는 보안, 신뢰, 위험 관리라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출현과 함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AI 번역 도입 초기 고객들은 더 빠른 납기와 낮은 비용을 요구하고, 과거에는 기계번역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던 콘텐츠에도 무분별하게 검수 없는 AI 결과를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AI 단독 사용으로 품질 오류와 환각이 발생하면서 고객이 안전한 전문가 검증을 위해 다시 LSP를 찾는 사례가 나타났다으며, 기업과 정부 고객은 데이터 오용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위험에 민감해지면서 엄격한 데이터 규정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Groot Nibbelink & Varga, 2026, pp. 14, 17). CSA리서치는 고객들이 잘못된 AI 번역으로 인한 소송 위험, 평판 훼손, 규제 미준수로 인한 기업 조사와 제품 출시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기업들에게 번역 품질관리 비용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험 완화와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Lommel, 2025a, p. 5). 향후 AI 번역 자동화가 초래한 다양한 리스크는 LSP의 품질 보증 범위를 기존의 언어 정확성을 넘어 위험 관리와 설명 가능성, 책임과 신뢰 등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기대와 예측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생명과학 의료 금융 법률 분야는 현재 언어서비스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엄격한 규제 준수와 전문적 검증이 요구되는 생명과학, 의료, 국방, 금융 및 법률 분야는 주요 성장 분야로 제시되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p. 10, 41, 53). 또한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와 리테일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르도르인텔리전스(2026)는 전자상거래와 리테일 부문의 언어서비스 수요가 2031년까지 연평균 7.32% 성

6) 롬멜(2025b, p. 2)의 보고서 중 Figure 2. The Industry Has Experienced a Profound Shift in Services since 201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그림 생성은 ChatGPT의 도움을 받음.

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상품정보, 결제 과정, 고객지원 및 마케팅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일회성 번역보다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다국어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시 스트리밍 플랫폼의 세계화와 다언어 동시 출시 전략에 힘입어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페스와 매시(Faes & Massey, 2024, p. 23)는 미디어 현지화가 지난 10년간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가 자막과 더빙 수요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가 전통적인 자막과 더빙을 넘어 AI 기반 현지화, 음성 합성과 복제, 접근성 및 문화적 각색과 다언어 영상 제작 등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어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역이다. 통역은 전통적인 언어서비스 중 번역 및 현지화와 달리 AI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단가 하락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으며, 현재 언어산업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CSA리서치의 언어산업 매출 구성 조사에서도 통역의 비중이 2019년의 7.09%에서 2024년의 22.6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Lommel, 2025b, p. 2). 흥미로운 것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순차통역과 국제회의 동시통역 외에 Covid-19 이후 보편화된 화상원격통역(Video Remote Interpreting, VRI), 원격동시통역(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RSI), 전화통역(Over-the-Phone Interpreting, OPI)이 비교적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⁷⁾. 더불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오역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고, 사법 절차상의 권리 및 책임과 결부된 의료, 보건, 생명과학, 법률, 금융, 정부, 공공서비스 등 고위험 규제산업은 고품질 인간 통역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통역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IMARC Group, 2026). 현재 대면통역과 원격통역은 상호 대

7) 『The 2026 Nimdzi 100(2026년지100)』에 따르면 2025년도 조사대상 언어기업의 통역서비스 제공 비율은 대면 순차통역 86.3%, 대면 동시통역 74.7%, 화상원격통역(VRI) 74.7%, 원격동시통역(RSI) 66.3%, 전화통역(OPI) 64.2%, 기계통역 및 음성 대 음성(speech-to-speech) 자동통역 기술 서비스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46)

체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과업의 위험도와 책임성 및 접근성 등 요인에 따라 다양한 통역 유형이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보고서에서 향후 기계통역, AI 기반 음성통역, 실시간 음성번역, CAI 등 AI 기반 통역의 중요도 및 성장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면통역과 원격통역 및 AI 자동통역이 시장의 다양한 의사소통 특성 및 수요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며 언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IMARC Group, 2026; Slator, 2026).

지금까지 언어서비스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구체적인 서비스 범주와 유형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통역 서비스의 견조한 성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논의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유형의 변화 양상을 키워드 중심으로 <표 2>에 정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언어산업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언어산업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변화

구분	기존	변화
산업 정체성	언어서비스	언어 글로벌 콘텐츠 솔루션
산업 주체	LSP	GCSP LSI LTP
서비스 범위	번역 현지화 통역 중심	콘텐츠 기술 데이터 접근성 컨설팅 등 인접 분야로의 확장
서비스 제공	번역 공정 일부의 외주	콘텐츠 생성에서 성과분석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	직접 생산 인력 배정	기술 모델 데이터 전문가의 오케스트레이션
매체	텍스트 중심	멀티모달
콘텐츠 생산	원문 번역	다언어 콘텐츠 생성 변환
운영 방식	단건 프로젝트	지속적 다국어 운영
수익모델	단어 페이지 시간 과금	솔루션 플랫폼 성과 기반
생산 주체	인간 단독 수행 인간-AI 협업	인간-AI 협업 AI 자동화

품질관리	번역 품질관리	품질 위험 책임 윤리 거버넌스
데이터	언어자료의 내부 활용	AI용 데이터 서비스
통역 방식	대면 원격통역	대면 원격 AI 통역 혼합
미디어 접근성	일반 자막 더빙	AI 미디어 현지화 접근성
전문화	범용 언어서비스	전문분야별 솔루션 (규제산업 등)
고객 관계	발주-납품 관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3.4 기술

앞서 분석한 언어산업의 진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산업은 기술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왔고 첨단 기술의 도입을 선도해왔다. 본 절에서는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 시장 조사기관의 기술 관련 리서치 내용과 인텔토에서 발행한 『The state of translation automation 2025(2025년 번역 자동화 현황)』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언어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언어산업의 기술 측면에서 AI의 도입, 특히나 LLM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출현은 산업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꾼 핵심적인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The 2026 Nimdzi 100(2026년지100)』은 2024년 분석에서 LLM이 기존의 기술 동향과 전망을 사실상 무효화했다고 언급했으며, 2025년에는 LLM 자체가 하나의 핵심 트렌드가 되어 모든 전망이 LLM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진단하였다. 2026년에는 여기에 에이전틱 AI와 엣지 AI(edge AI)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66). 더불어 향후 AI 기반 경쟁우위는 자원의 소유에서 지능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량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인텔토(2025)의 기술 평가는 번역 엔진과 LLM의 성능 비교를 통해 이러한 예측이 현재의 언어산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언어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번역기술의 경우 기존의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에서 LLM 기반

번역으로 발전의 축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텐토(2025)는 번역 엔진과 LLM 및 AI 에이전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 설정하고 워크플로우를 조합한 총 80개의 솔루션을 평가한 결과 최상위 솔루션의 89%가 LLM 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의 55% 대비 크게 증가한 결과로 LLM의 번역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다만 이러한 결과가 곧 NMT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텐토(2025)에 따르면 LLM은 전반적인 품질 및 문맥 처리와 문체 일관성 등 측면에 강점을 보이지만 번역 속도는 NMT 대비 10배~100배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실시간 번역이나 대규모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콘텐츠의 경우 NMT를 사용하고, 문맥 처리와 문체 조정 등 지시 수행이 필요한 복잡한 텍스트의 경우 LLM을 사용하는 등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겠다. 다만 번역에 특화된 Lara나 Tower 등 LLM의 경우 지연시간이 대폭 개선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LLM으로의 발전 흐름을 가속화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Intento, 2025, p. 67).

흥미로운 것은 NMT와 LLM을 불문하고 번역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엔진이나 모델의 성능 향상보다 요구조건에 따른 맞춤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NMT에 번역 메모리, 용어집, 스타일 가이드 등을 적용하고 LLM의 경우 이에 더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검색증강생성(RAG) 등을 통해 요구조건을 정확히 반영할 때 번역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텐토의 평가에서 전문용어, 어조, 형식, 일관성 등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 모델에서 텍스트 당 10~15개의 오류가 나타난 반면, 요구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은 0~2개의 수준으로 오류가 감소하였으며, 맞춤 설정이 번역 엔진의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중위권이던 엔진을 최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Intento, 2025, p. 67). 이를 통해 범용 LLM 자체의 성능보다는 번역에 특화하여 개발하였거나 혹은 요구조건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LLM과 번역엔진이 시장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의 발전 방향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계번역(MT)’에서 ‘번역 자동화(translation automation)’로의 발전이다. 번역자동화는 기계번역을

8) 인텐토(Intento, 2025)는 본 결과가 데이터, 언어쌍, 도메인, 품질요건 및 평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용한 번역문 생성에 국한되지 않고, 원문 개선, 번역모델 선택, 용어와 문체의 적용, 오류 탐지, 자동 후편집 및 품질평가를 연결하는 전 과정의 자동화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번역 검토 후편집 재검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다중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구체화되고 있다(Intento, 2025, pp. 21-22, 69-71). 다만 복수의 에이전트와 번역모델을 실제 기업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행 순서와 조건의 설정, 언어자산 제공, 작업 배정, 인간 검토, 품질 검증 및 외부 콘텐츠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세대 번역관리시스템(Translation Management System, TMS)은 번역 작업과 용어 및 TM 등의 언어자산을 관리하는 기존 기능을 넘어, AI 에이전트와 번역모델 및 인간 전문가와 기업 시스템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72).

번역자동화가 자동화의 범위와 목표를 나타내는 상위 개념이라면, 다중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행 구조이며, TMS는 해당 구조가 기업의 실제 콘텐츠 운영 시스템에 연계하여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운영 및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즉, AI 에이전트가 개별 번역 작업을 수행한다면, TMS는 어떤 에이전트와 모델이 어떠한 데이터와 기준에 따라 작동하고 언제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플랫폼과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용어, 어조, 교정, 편집을 담당하는 다중 에이전트를 결합하여 번역 과업을 수행한 인텐토(2025)의 기술 평가 결과, 다양한 언어쌍에서 최우수 솔루션으로 선정되어 다중 에이전트를 활용한 번역 자동화의 가능성을 의미 있게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에이전트 기반 번역은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 용어 등 언어자산의 준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여 기존의 MTPE 보다 기술과 언어적 업무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는데(Groot Nibbelink & Varga, 2026), 이러한 복잡한 운영의 과정을 대항해 줄 플랫폼이 차세대 TMS의 발전 방향이며, 지능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TMS의 최상위 총괄 운영이 향후 인간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지 AI 기술이 통역과 번역모델에 적용되

는 것이다. 에지 AI는 “클라우드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자 또는 기기 근처의 에지(edge) 디바이스에서 직접 추론 및 처리를 수행하는 기술”⁹⁾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 처리 가능한 온디바이스 형태와 기업이나 기관의 자체 서버에서 처리 가능한 온프레미스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AI 기반 통역 및 번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기업 기밀 및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정보 보안과 데이터 주권 관련 문제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에지 AI 기술을 적용하여 로컬에서 구동하는 통역과 번역모델이 보편화 된다면 네트워크의 불안정성과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차단하고 다양한 환경과 요구에 대응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이 필요한 것은 데이터 사업의 성장이다. 『The 2026 Nimdzi 100(2026년지100)』에 따르면 2025년 언어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분야는 원격통역이었으며, 그다음이 데이터와 AI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서비스업체들은 기존 AI 모델의 사용자일뿐 아니라 AI 개발에 필요한 다국어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인 수치와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정제, 주석과 합성 데이터의 생성, 전문가 검증, 도메인별 재학습, 문화 언어 적합성 평가 등 데이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소버린 AI의 확산, 도메인에 특화된 AI 모델의 개발 등으로 향후 고품질의 데이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언어기업의 언어, 문화, 도메인 전문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서비스는 언어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3.5 인재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언어산업의 인력구조와 직무 및 필요 역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인력 규모의 경우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언어산업 전체 인력 규모는 5% 미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9) Naver 지식백과. IT-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16406&cid=42346&categoryId=42346>

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전통적인 사내 언어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언어와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기술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출력물에 대한 체계적 품질 검증과 AI 워크플로우 관리에 능숙한 숙련된 언어전문가는 높은 보수를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단가 하락 압박에 직면한 포스트에 디팅 종사자들은 직무 불만족과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기존 사내 인력을 감축하고 AI 기반 컨설팅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동시에 조사대상 기업의 27.6%가 언어전문인력 부족을, 23.9%가 통역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어 현재의 언어산업 시장은 인재 수급 측면에서 전체 인력의 감소와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48).

인력구조 측면에서 현재의 언어산업은 기존의 번역과 프로젝트 관리 중심에서 언어와 기술 그리고 도메인 전문성을 갖는 인력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고용구조 역시 기존의 언어와 행정 중심의 내부 상근 인력 중심에서 기술과 AI 중심의 핵심 내부 인력과 외부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p. 15-16, 70-71). 그 외 직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어전문가의 역할이 직접적인 번역문의 생산과 수동적인 후반집에서 목적과 위험도에 따라 다중 AI 에이전트 혹은 인간과 AI 협업의 워크플로우를 설계 및 조정하고, 도출된 번역 결과에 대해 품질 검증, 규제 준수, 문화적 적합성, 윤리 및 법률적 위험을 관리 및 통제하는 책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Groot Nibbelink & Varga, 2026, p. 14). 또한 기업의 현지화 수요와 더불어 기계번역 및 LLM의 발전에 따라 일반번역과 언어별 번역 생산보다는 전문분야 번역과 다국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명과학, 의학, 금융, 법률 등 시장 수요가 높은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별 언어보다는 다국어 콘텐츠 운영에 대한 AI 모델 선정과 전문가 개입 등 관련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 다양한 AI 모델 및 언어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다언어 자료를 AI용 학습 데이터 등으로 정제, 검증 및 구축하는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직무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언어산업의 인력구조 및 직무 변화를 아래의 <표 3>

을 통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3

AI 시대 언어산업의 인력구조 및 직무 변화

구분	기존	변화
인력구조	번역가 프로젝트 관리자 중심	언어 기술 분야 전문가의 융합
고용구조	언어와 행정 업무 내부 상근인력 중심	AI, 언어기술 중심의 핵심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의 결합
번역생산	번역문 직접 생산 및 수동 후편집	AI 번역 자동 후편집 결과에 대한 감독과 검증
품질관리	문장 단위 및 용어 오류 수정 중심의 언어 품질관리	문서 콘텐츠 전체의 일관성과 품질 검증, 규제 준수, 문화적 적합성, 윤리 및 법적 위험성을 통합 관리하는 책임관리
워크플로우	주어진 작업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목적 위험도에 따른 인간-AI 워크플로우 설계 조정
전문분야 콘텐츠	일반번역과 언어별 생산 중심	분야 지역별 고도화된 전문성 및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기술 데이터	번역 지원 도구의 제한적 활용	AI 모델 및 에이전트 운영과 선정, 다언어 데이터의 정제 검증 구축

이상과 같이 AI의 도입으로 언어산업의 시장, 인력, 직무 구조가 변화하였다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요구역량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존의 언어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 역량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높은 수준의 언어와 문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AI의 자동화와 유창성에 가려진 오류와 환각, 문화적 맥락의 결여를 세밀하게 탐지하고 바로잡을 수 없으며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화용과 문체를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AI 자동화 과정에서 언어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가장 핵심적인 임무인 품질 검증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AI와 언어기술 리더로서 AI가 특정 언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언어산업의 핵심적인 운영체제와 인프라로 확장된 이상, MT, LLM, AI 에이전트 등 언어산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AI 모델의 작동원리와 특성 및 한계에 대한 이해,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가진 모델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언어 산업 종사자에게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통번역에 특화된 TMS, QA, CAT, CAI, 용어관리 및 자동 후편집 프로그램 등의 언어기술 도구를 AI와 연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번역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요구조건에 따라 AI 모델과 번역엔진 및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최적의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예외적 상황이나 고위험 콘텐츠에 대해 인간 개입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통합적인 AI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향후 언어산업에서 기존의 언어자료를 AI용 데이터로 구축 및 관리하는 데이터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범용 데이터 외에 박사급을 포함하는 분야별 고급 데이터 검증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만큼 향후 언어와 데이터 및 도메인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들의 언어데이터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다수의 시장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의료와 의약을 포함한 생명과학, 보건, 금융, 법률 등 규제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용어 및 규제 준수 관련 전문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AI 자동화가 촉발한 엄청난 처리 속도와 규모에 비례하여 야기되는 윤리, 편향, 정보 보안, 저작권 등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능력도 매우 중요한 역량의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매체가 텍스트 중심에서 음성, 영상, 이미지 등 멀티모달로 다양화되고, 단일 언어 번역이 아닌 다국어 콘텐츠 생성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멀티모달 및 다국어 콘텐츠를 요구조건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는 역량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사소통과 컨설팅 역량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언어산업 관련 기업은 일회성 프로젝트 기반의 언어서비스 제공자에서 다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포지셔닝이 변화함에 따라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술을 설명하며, 솔루션을 제안하고, 성과와 가치를 설득하는 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역 수요의 지속 및 증가 추세와 더불어 통역 채널 및 기술의 다변화가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면 통역 외 원격통역, 화상통역, 기계통역, 기계보조통역, 음성번역, 하이브리드 통역 등 다양한 유형의 통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선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언어산업의 시장, 인력, 직무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AI 시대 언어산업의 변화와 요구역량

언어산업 변화	요구역량
AI 자동화 확산과 언어전문가의 품질 검증 중심 역할 전환	언어 문화 기반 품질 검증 역량
AI와 언어기술의 융합 및 산업 인프라화	AI 언어기술 리터러시
단일 도구 중심 작업에서 복수 모델 도구 인간이 결합된 자동화 체계로 전환	AI 워크플로우 설계 조정 역량
언어산업의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과 AI 데이터 서비스 확대	다언어 데이터 구축 관리 역량
의료 생명과학 보건 금융 법률 등 규제산업의 언어서비스 수요 확대	분야 전문성 규제 대응 역량
AI 활용의 속도와 규모 확대에 따른 품질 윤리 법률 보안 위험 증가	AI 활용 원칙 책임 및 위험관리 역량
텍스트 중심 번역에서 음성 영상 및 다언어 콘텐츠의 생성 변환 운영으로 확장	멀티모달 다언어 콘텐츠 운영 역량
일회성 프로젝트 수행에서 다언어 콘텐츠의 지속적 운영과 솔루션 제공으로 사업모델 전환	고객소통 컨설팅 역량
통역 수요의 지속과 서비스 채널 기술의 다변화	다채널 통역 수행 운영 역량

지금까지 3장에서는 글로벌 언어산업의 현황을 시장 규모와 산업구조,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 기술과 인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재의 언어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도구 차원의 변화가 아닌 전체 시장의 공급과 수요, 수익 모델, 인적 구조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역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목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AI가 자리잡고 있다. AI로 촉발된 자동화는 종사 인력의 대체와 감축을 예고하였으나 역설적으로 AI의 활용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광범위하게 확산될수록, 처리의 속도와 규모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성, 검증 가능성 및 설명 가능성, 전문가의 통제와 조정, 의사결정 권한에 기반한 시스템의 설계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Lommel, 2025a).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AI 만능주의에 기반한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인간의 역할이 인간 개입(human in the loop)에서 전문가 개입(expert in the loop)으로, 더 나아가 인간 중심(human at the core)(Lommel, 2025a, p. 4)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AI 시대 언어산업에서 인간 중심의 방향성을 견지하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지 다음 4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AI 시대 통번역 교육 혁신 방향

본 장에서는 앞서 글로벌 언어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역량을 교육적으로 전환하여 AI 시대 통번역 교육의 혁신 방향을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요구역량의 교육적 전환은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산출물’ 중심의 ‘도구 사용법’ 숙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과업’을 기반으로 한 ‘과정 중심 수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둘째, 요구역량 기반으로 제시된 교육 내용과 방법은 독립된 개별 교과목이나 모듈로서의 접근 외에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과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향을 지향하며, 셋째, AI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 및 설명 가능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4.1 교육 목표와 내용

제3장의 글로벌 언어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의 언어산업은 번역과 통역이라는 개별 산출물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서 언어, 데이터, AI 모델, 기술 플랫폼, 전문인력과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가 결합된 다국어

솔루션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언어전문가’ 양성에서 ‘언어기술전문가’ 양성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의 통번역 교육은 학습자가 언어, 문화, 윤리, 기술적 판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델과 도구를 선택 및 조합하고, 과업의 위험도와 품질 수준을 결정하며, 다국어 콘텐츠와 데이터 및 프로젝트 전반을 설계하고 그 가치를 고객과 사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는 AI가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은 현재의 언어 산업에서 인간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AI 자동화를 통해 체감하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 그리고 기만적인 유창성과 완결성 이면에 드리운 환각과 오류, 편향과 위험을 언어, 기술, 문화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탐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며,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책임의 주체가 인간 전문가가 향후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인간 중심(human at the core)의 관점에서 개념화하여 ‘의사소통 목표에 따라 과업을 설계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언어기술전문가의 육성’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구역량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언어와 문화 기반 품질 검증은 AI 산출물의 표면적 유창성에 가려진 의미와 화용 및 문화적 오류를 탐지하고, 과업 목적과 요구조건에 따라 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AI와 언어기술 리터러시 및 AI 워크플로우 설계는 MT LLM CAT TMS CAI 등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복수 모델과 도구 및 인간 전문가의 역할을 배분하고 품질과 비용 및 속도와 보안을 고려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수준으로 심화할 수 있다. 특히 요구사항 기반 맞춤화와 다중 에이전트 구성이 결과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기술평가(Intento, 2025, pp. 34-43)는 특정 모델의 조작법보다 비교 실험, 모델과 에이전트의 선택과 배정, 결과 검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언어 데이터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교육에는 TM 용어집 코퍼스 등 실제 언어자료를 AI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등의 실습을 수행하고,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출처, 저작권, 개인정보 익명화와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의료 생명과학 보건 금융 법률 등 고

위험 규제산업의 경우 시장 수요가 높고 인간의 품질 검증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해당 도메인의 전문지식, 규정과 법규, 전문용어, 문서 유형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AI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역량의 경우, 과업 중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과업의 성격 및 위험 수준별 AI 사용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 전문가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실습한다. 멀티모달 다국어 콘텐츠 운영 역량의 경우, AI를 활용한 자막 더빙 음성합성 음성인식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생성, 다국어 접근성, 일관성 관리를 포함하며,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여러 언어와 매체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다채널 통역 역량의 경우, 대면, 원격, 하이브리드 통역 및 RSI, VRI, CAI, 기계통역, 음성번역 등의 특성과 한계를 학습하고, 인간 통역과 AI 통역의 선택 기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통역 채널을 서로 분리된 기술로 다루기보다 의사소통 상황과 수용자 요구에 맞추어 통합 운영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컨설팅 역량의 경우, 고객 요구와 문제 진단, 워크플로우 설계와 제안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 등을 학습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번역 교육기관과 언어서비스기업, 기술기업 등과의 협력뿐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등 관련 전공과의 학제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협력의 형식은 일회성 특강 제공이 아닌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공동설계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동시에 학생이 지식의 습득을 넘어 현장의 판단 기준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 5

AI 시대 언어산업의 요구역량을 반영한 통번역 교육내용 제안

요구역량	교육 내용	학습 목표	교과목(모듈) 예시
언어 문화 기반 품질 검증 역량	의미 화용 장르 문 화 오류 분석 기반 평가	AI 산출물의 언어 문화적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다.	AI 통번역 품질평가

AI 언어기술 리터러시	다양한 AI 모델, 번역 엔진, RSI, CAT, CAI, 등의 원리 기능 한계 이해 및 비교분석	과업에 적합한 AI 언어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언어 기술의 이해와 활용
AI 워크플로우 설계 조정 역량	요구사항 분석, 프롬프트, 모델 도구 선정, 인간 개입 조건 설정 등	인간과 복수 기술이 결합된 AI 워크플로우를 설계 및 조정할 수 있다.	AI 기반 통번역 워크플로우 설계
다언어 데이터 구축 관리 역량	TM 용어 코퍼스, 구축 및 데이터 정제와 라벨링 실습, 메타데이터	목적에 맞는 다언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언어 데이터 관리
분야 전문성 규제 대응 역량	의료 생명과학 보건 금융 법률 등 도메인 지식, 규정, 용어, 문서 기능 학습	분야 지식과 규제를 통번역 과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전문 분야 통번역 품질관리
AI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역량	환각, 편향, 기밀, 개인정보, 저작권, 책임 귀속, 위험등급	AI 활용으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다.	통번역 AI 윤리와 위험관리
멀티모달 다언어 콘텐츠 운영 역량	자막 더빙 음성 인식과 합성, 영상 현지화, 다국어 접근성, 다국어 콘텐츠 생성 운영	멀티모달 다언어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할 수 있다.	멀티모달 다언어 서비스
다채널 통역 수행 운영 역량	대면 원격 하이브리 드 통역, RSI VRI, 음성번역 등 특성 이해 및 상황별 수행	채널과 상황에 적합한 통역 서비스를 수행 및 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 통역 수행과 운영
고객소통 컨설팅 역량	요구분석, 품질 비용 납기 등 협상 및 제안	고객 요구를 분석하고 적합한 언어서비스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	언어서비스 PM과 컨설팅

4.2 교육 방법

4.2.1 산출물 생산에서 문제해결 및 워크플로우 설계 중심으로 전환

요구역량의 변화는 교수학습의 기본 단위를 개별 텍스트와 정답 중심 교정에서 실제 언어서비스 문제해결과 워크플로우 설계 중심 학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개별 텍스트의 언어 변환 중심의 결과물 산출보다 교사가 제시하는 과업을 중심으로 원문의 특성, 이용 목적, 대상 독자, 품질 수준, 비용과 납기 등의 조건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인간과 기술의 역할을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는 전처리, 모델 선택, 번역 생성, 품질 검증, 후편집 및 최종 검수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설계하도록 하며, 단계별 오류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여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판단하게 한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개별 산출물의 생산자를 넘어 복수의 모델, 도구, 인간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워크플로 설계자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평가는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작업 절차의 적절성, 도구 선택의 근거, 문제해결 과정 및 의사결정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한다.

4.2.2 AI 모델과 도구 선별을 위한 비교 실험과 오류 기반 학습

AI 모델과 언어기술은 언어쌍, 분야, 텍스트 유형 및 요구 품질에 따라 서로 다른 성능을 나타내므로, 특정 도구의 사용법보다 과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별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이 동일한 원문을 복수의 기계번역 모델과 LLM에 입력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의 장점과 한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비교 기준에는 정확성, 유창성, 용어 일관성, 문체 적합성, 맥락 처리, 형식 보존, 처리 속도 및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오류 기반 학습에서는 오역, 누락, 환각, 문화적 부적절성, 용어 불일치 등의 오류를 유형화하고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프롬프트 수정, 모델 교체, 인간 검수 강화 등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재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모델의 출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근거에 따라 기술을 선택 및 평가하는 비판적 AI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다.

4.2.3 요구사항 기반 AI 맞춤형 교육

AI 번역 교육은 범용 모델의 출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과업별 요구사항에 따라 모델과 워크플로우를 맞춤화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인텐토(2025)는 기본 모델 대비 맞춤형 솔루션의 오류가 현저적이며 용어, 문체, 일관성, 형식 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AI 활용 역량의 핵심은 특정 모델을 조작하는 기술 자체보다 번역 목적과 품질기준에 맞게 모델의 작동 조건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화를 바탕으로 용어집과 번역메모리 연계, 프롬프트 설계, 스타일 가이드 적용, 자동 후편집 규칙 설정 등을 실습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맞춤화 이전과 이후 결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이 맞춤화 적용이 결과물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4.2.4 통역 교육의 다중채널 실습과 의사소통 상황별 시뮬레이션

통역서비스가 대면 통역에서 원격동시통역 및 AI 지원 통역, 음성 번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통역 교육도 다양한 채널과 기술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원격동시통역, 하이브리드 행사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통역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실습에는 플랫폼 조작, 음향과 화면 관리, 자료 공유, 통역 교대 조정 및 기술 장애 대응 등의 운영 역량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제회의, 의료상담, 사법 통역, 비즈니스 협상 등 의사소통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맥락 의존도나 위험도에 따라 인간과 AI 통역사의 역할을 배분하고, CAI와 AI 도구를 통해 통역사의 준비 효율성을 높이고 인지 부하를 줄이는 다양한 실습을 경험하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그 외 연결 지연, 음질 저하, 화면 정보의 제한, 돌발 상황 등의 변수를 적용하면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 전환 능력뿐 아니라 채널과 상황별 특성에 맞게 통역 서비스를 수행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4.2.5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실제적 학습 환경 제공

급변하는 언어산업 환경 속에서 통번역 교육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줄

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계가 필수적이다. 연계의 방식은 기존과 같이 일회성 특강이나 현장실습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산학연계는 문제해결, 워크플로우 설계, 프로젝트 중심 학습의 실제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산업 파트너는 과업 발굴과 브리프 설계, 중간 멘토링, 최종 피드백에 참여하고, 교원은 학습 목표 설정과 과정 지원 및 평가를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공동운영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계는 학생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역량 제고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교원의 산업 실무 이해를 위한 정기 연수나 현장의 언어기술 전문가와의 워크숍 및 공동 연구, 실제 활용되는 다양한 AI 모델과 도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체는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하고 통번역 교육기관은 최신 산업 동향과 기술을 교육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교수자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

4.2.6 마이크로 모듈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AI와 언어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단기 집중형 마이크로 모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모듈은 특정 기술이나 실무 역량을 짧은 기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소규모 단위로 구성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설계, 용어집 기반 맞춤화, 다언어 데이터 관리, 원격통역 플랫폼 운영 등을 독립된 모듈로 개설할 수 있다. 각 모듈은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신설 및 교체하고, 학습자의 전공과 진로에 따라 선택하거나 단계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AI 시대 급변하는 글로벌 언어산업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통번역 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언어산업의 현황 분석을 위해 CSA리서치, 님지인사이즈, 슬레이터, 아이마크그룹, 모르도르인텔리전스, 중국번역협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언어산업 시장조사 보고서와 웹페이지 공개자료를 분석하였고, 특별히 기술 관련 분석을 위해 인텐토사가 발표한 『2025년 번역 자동화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현황 분석은 언어산업의 시장 규모와 산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 기술과 인재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시장 규모와 미래 성장 전망 관련 각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수치에 편차가 있고 보수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전망이 공존하였는데, 이는 각 기관별 시장의 범주와 조사 방법 및 산정 기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구조의 경우 기계번역과 AI의 확산, 결정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LLM의 발전이 산업 구조 재편의 가장 큰 동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LSP 중심의 번역 현지화 시장을 축소하고, 글로벌 콘텐츠 솔루션의 운영과 언어데이터 서비스, 다국어 접근성, 품질 검증 및 규제와 리스크 자문 등으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신경망 번역 엔진에서 LLM과 다중 AI 에이전트로 발전의 축이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용 단일 AI 모델 대비 과업 맞춤형 솔루션의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이 특정 모델이나 번역엔진 혹은 CAT CAI 등 도구 사용법에 능숙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 번역 엔진, 도구의 특성과 더불어 언어쌍, 요구사항, 도메인의 특성을 파악한 뒤 효과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능력인 것을 알 수 있다. 인재 측면에서는 전체 인력의 감소와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현재 언어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기존의 언어 전문성과 함께 발전하는 AI 모델과 도구 등을 과업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며, 이와 동시에 AI 사용으로 촉발되는 품질, 윤리 등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분야별 규제 준수 등 전문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AI와 인간의 상호보완적 협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위험을 통제하고, 성과와 가치를 설명하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직무역량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통역 교육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언어전문가’를 양성하던 교육 목표에서 ‘언어기술전문가’ 양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의사소통 목표에 따라 과업을 설계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언어기술전문가 양성’으로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언어산업 변화에 따라 도출된 새로운 요구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 기관의 언어산업 시장조사보고서와 인텐토사의 기술평가보고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별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글로벌 언어산업의 시장 정의와 범주 및 발전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산업계 자료에 근거하여 AI 기술 확산이 요구하는 새로운 요구역량을 통번역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안함으로써 통번역 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슬레이터 및 CSA리서치 등 일부 원자료는 유료 구독 기반으로 운영되어 공개된 요약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세부 수치의 검증에 제한이 있었다. 둘째, 각 보고서가 조사 시점과 산정방식 및 산업 분류 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어 완전한 수치 비교보다는 경향성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급변하는 산업 특성상 본 연구에서 다룬 시장 데이터는 특정 시점을 반영하는 분석결과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통번역 교육기관 대상 실증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교과과정과 교과목 설계까지 다루기에는 연구 범위상 한계가 있어 해당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본 연구가 통번역 교육 현장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출발점이 되어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통번역 교육이 산업의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CSA Research. (n.d.). Global market survey. Retrieved August 7, 2026, from <https://csa-research.com/l/gms>
- Groot Nibbelink, M., & Varga, L. K. (2026). *The 2026 Nimdzi 100: The size and state of the global language industry*. Nimdzi Insights. <https://www.nimdzi.com/nimdzi-100-2026/>
- IMARC Group. (2026). *Language services market size, share, trends and forecast by service, component, application, and region, 2026-2034*. Retrieved July 15, 2026, from <https://www.imarcgroup.com/language-services-market>
- Intento. (2025). *The state of translation automation 2025: An independent multi-domain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engines, large language models, and AI agents*. <https://inten.to/the-state-of-translation-automation-2025/>
- Lommel, A. (2025a). *10 predictions for 2026*. CSA Research. <https://insights.csa-research.com/reportaction/305013811/Marketing>
- Lommel, A. (2025b). *2025 market sizing: Year end update*. CSA Research. <https://insights.csa-research.com/aim/en/reports/305013812>
- Lommel, A., & Coleman, P. (2025). *Q1 2025 market forecast: Is flat the new normal?* CSA Research.
- Lommel, A., & DePalma, D. A. (2023). *The post-localization era: How the*

- decline of traditional localization can deliver major gains for the language services sector.* CSA Research. <https://insights.csa-research.com/reportaction/305013568/Toc>
- Mordor Intelligence. (2026). *Language services market size & share analysis: Growth trends and forecasts (2026-2031)*. Retrieved July 15, 2026, from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language-services-market>
- Slator. (2025). *Slator 2025 language industry market report*. <https://slator.com/slator-2025-language-industry-market-report/>
- Slator. (2026). *2026 Slator market report: Language solutions & AI*. <https://slator.com/2026-market-report-language-solutions-ai/>

<2차 자료>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 ‘포스트에디팅 생산성’과 ‘기계번역 엔진 성능 비교’. 번역학연구, 20(1), 41-76. <https://doi.org/10.15749/jts.2019.20.1.002>
- 남보리. (2021). LSP 관점에서 바라본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전략적 지향점: 스타일 가이드 지침 연구 및 LSP 기계번역 서비스 사례. 번역 언어 기술, 2, 5-43.
- 박지영. (2017). 언어 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20대 글로벌 LSP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https://doi.org/10.22844/its.2017.21.1.137>
- 전현주. (2022). 인공지능 번역플랫폼 기반 번역가의 직명 및 직무기술의 분화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26(1), 167-193. <https://doi.org/10.22844/its.2022.26.1.167>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n.d.). 에지 인공지능. IT용어사전. Naver 지식백과. 2026. 7. 21.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16406&cid=42346&categoryId=42346>
- 王传英, 孙瑾. (2026). 人工智能时代语言服务人才需求分析与培养启示——基于语言服务企业的调研 [The demand for language service professionals in

- the AI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cultivation: A survey of language service enterprises]. 外语界, (2), 64-71.
- 中国翻译协会. (2026). 2026全球翻译行业发展报告 [2026 글로벌 통번역산업 발전보고서].
- Angelone, E., Massey, G., & Ehrensberger-Dow, M. (2024). Introduction: Contextualizing language industry studies. In G. Massey, M. Ehrensberger-Dow, & E. Angelone (Eds.), *Handbook of the language industry: Contexts, resources and profiles* (pp. 1-14). De Gruyter Mouton. <https://doi.org/10.1515/9783110716047-001>
- Faes, F., & Massey, G. (2024). Charting the language industry: Interview with an industry observer. In G. Massey, M. Ehrensberger-Dow, & E. Angelone (Eds.), *Handbook of the language industry: Contexts, resources and profiles* (pp. 17-32). De Gruyter Mouton. <https://doi.org/10.1515/9783110716047-002>
- van der Meer, A.-M. (2024). Evolution of the language industry. In G. Massey, M. Ehrensberger-Dow, & E. Angelone (Eds.), *Handbook of the language industry: Contexts, resources and profiles* (pp. 33-48). De Gruyter Mouton. <https://doi.org/10.1515/9783110716047-003>

<AI 도구 활용 보고>

OpenAI. (2026). ChatGPT (GPT-5, 2026.08.01.),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3장> 본문 작성 시 분석내용의 도식화를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p. 46의 그림1과 p.49의 그림2는 모두 AI 도구로 생성되었으며,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본 보고서에 수록함.

Rethink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global language industry

Ai-Li Chang

Department of Interpreting & Transl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significant gap between the rapid transformation of the language industry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adaptation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to this changing environment. Drawing on recent industry reports from CSA Research, Nimdzi Insights, and Slator, together with Intento's report on the state of translation automation, the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global language industry across four dimensions: market size and industry structure, business models and service types, technology, and tal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fessionals in an evolving industry environment. It then maps these competencies onto specific curricular content and pedagogical approaches and proposes new educational objectives and directions for innovation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in the AI era.

Keywords: Language services industry; AI; translation; interpre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education

키워드: 언어산업, AI, 번역, 통역, 교육

장애리(<https://orcid.org/0009-0007-1851-1836>)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통역전공 부교수

aiali@ewha.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

www.kci.go.kr